

방탄소년단 현상

저자 (Authors)	이택광
출처 (Source)	문화과학 97 , 2019.3, 202-215(14 pages)
발행처 (Publisher)	문화과학사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997383
APA Style	이택광 (2019). 방탄소년단 현상. 문화과학, 97, 202-215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방탄소년단 ‘현상’

이택광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기획
BTS 읽기

방탄소년단(BTS) 현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이 현상을 ‘새로운 것’이라고 파악하지만, 과연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팬덤을 그렇게 전례 없던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당한 관점인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013년 6월 13일 데뷔한 것으로 기록된 이 ‘7인조 보이그룹’은 10대와 20대의 ‘생각’을 노래하는 밴드로 알려져 있다. ‘방탄’의 “‘충알을 막아낸다’라는 뜻”처럼,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에는 “10대들”에 대한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겠다는 심오한 뜻”을 담겨 있다고 한다.¹ 이 ‘심오한 뜻’에 공감한 일부 평론가들은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을 10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가사’에서 찾는다. 이런 퍼포먼스가 쌓여서 국제무대에서 성공한 것이라는 ‘공식 인준’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가사’는 방탄소년단의 경우만 갖췄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한 선례로 이미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고, H.O.T나 god의 가사들 역시 10대들의 애환을 다루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왜

1 「방탄소년단, 힙합 방탄으로 10대들을 지켜줄게!」, <텐아시아>, 2013. 6. 14.

이들의 노래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획득하지 못했는지 해명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영국의 경우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은 한국어를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는 바람에 수용자들 사이에서 고딕풍의 노래로 인식되기도 한다.²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밴드이긴 하지만 영어 가사가 아니라 한국어 가사로 노래를 부른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팬덤 현상을 ‘좋은 가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거 일본 밴드 X-Japan의 ‘국제성’에 비한다면,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한국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설명하기란 난망하다.

나는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국제적인 팬덤 현상은 분명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그것이 제공하는 스펙터클에 도취되어 인상비평에 가까운 주장만을 나열하는 것은 비평을 가장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그 기만의 행위가 복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단도직입해서 말하자면, 방탄소년단은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통과해서 지구적 자본주의의 일원으로 나아온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때 일본문화가 담당했던 서구 하위문화의 자리를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어받은 것이 한류라고 한다면, 방탄소년단은 그 한류의 유산을 이어받은 적자인 셈이다.

이 정체성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찬사들에서 드러나듯, 겉으로 보기에 수미 일관하고 매끈하지만 사실상 기저에 민족주의와 현실 국가체제 사이의 균열을 내장하고 있다. 이 현실 국가체제는 민족주의의 무한성과 달리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국제관계에 얽매어 있다. 방탄소년단은 평론가들의 감언이설처럼 ‘중

2 실제로 BTS와 gothic이라는 키워드를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고딕 장신구나 의류가 팔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은 가사'의 음악으로 '국제성'을 획득했다기보다, 근대 이후, 특히 2차대전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전후체제' 또는 '전후질서'라고 불리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구축과 연동하는 '상품의 보편성'을 획득한 것이다. 이 '상품의 보편성'을 민족주의와 버무려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다. 중요한 것은 방탄소년단을 구성하고 있는 '불가능한 교환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생성하는 쾌락의 순환 회로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민족 아니면 인류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앞에 놓고 있는 '국민'의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국민'은 정치적 존재인 '인민'이기도 하면서, 그 '인민'으로 수렴할 수 없는 '데모스'이기도 하다. 데모스의 재현 불가능성은 정치의 역동성을 낳는 에너지원이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는 데모스를 '국민'으로 호명하기 위한 열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방탄소년단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작년 일본 도쿄돔 공연을 앞둔 11월 8일 벌어진 이른바 "원폭 티셔츠" 소동이다.³ 한국의 언론은 주로 '협한'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지만, 정작 지민이 왜 그 티셔츠를 입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빠져 있었다. BBC나 『가디언』, 그리고 CNN을 포함한 외신들이 티셔츠를 입은 '지민의 의도'에 집중하면서 당시 불거진 한일 긴장관계를 출연 취소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과 대조적이다.⁴ 『가디언』은 11월 9일 기사에서 방탄소

3 2018년 11월 10일자 조선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엔 일본 극우 성향 매체 『도쿄스포츠』가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작년 월드투어 때 입은 티셔츠와 멤버 RM이 광복절을 기념해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문제 삼으며 '비상식적이다. 이들의 반일 활동이 한국에서 칭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뮤직스테이션' 측도 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BTS' 소속 레코드사에 티셔츠 착용 의도를 묻는 등 협의를 진행했지만 종합적 판단 결과 출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멤버가 입은 '원폭 티셔츠' 문제 삼아... 日방송, BTS 출연 취소」, 조선닷컴, 2018. 11. 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0/2018111000183.html).

4 특히 BBC는 문제의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의 티셔츠를 입은) 지민의 의도에 대한 엇갈린 진술들이 있다"고 밝혔다("BTS T-shirt: Japanese TV show cancels BTS appearance over atomic bomb shirt,"

년단 소속사가 일본 방송 출연 취소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나 원폭 티셔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⁵ 이 티셔츠를 입은 행위를 지지하는 자유아시아방송 같은 특정한 ‘색채’를 지닌 매체들이 없진 않았지만 주류 언론에서 이 문제는 사정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듯 보였다.

11월 13일 발표된 소속사 빅히트의 공식 입장문에서도 정작 왜 지민이 문제의 티셔츠를 입게 되었는지 그 의도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지민이 그 티셔츠를 입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은 (...) 상기 사안들의 책임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⁶ ‘일체의 의도’가 없는 ‘순진한 일탈’이었다는 이런 주장은, 여러 기사를 통해 언급된 ‘팬이 선물한 티셔츠를 지민이 입었다’는 내용과 이어진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순진한 아티스트’는 논란이 될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티셔츠를 입은 ‘철부지’로 밝혀진다. 바쁜 일정 때문에 소속사가 일일이 의상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해명까지 더해지면, 이런 ‘순진한 지민’의 이미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을 포장해온 그 ‘심오한’ 철학자의 이미지를 배반한다. 정부가 민간외교에 대한 공헌을 높이 사서 화관문화훈장까지 수여한 ‘아티스트’가 알고 보니 “사회/역사/문화적 배경”에 무지했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 있는 지민’이 논란을 예상하고 티셔츠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

BBC, 9 November 2018. <https://www.bbc.com/news/world-asia-46147777>.

5 “BTS performance axed by Japanese TV show over atomic bomb T-shirt,” *The Guardian*, 9 Nov 201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nov/09/japanese-tv-show-axes-bts-performance-atomic-bomb-t-shirt-hiroshima>

6 「[공지] 최근 방탄소년단에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입장」,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페이스북, 2018. 11. 13. <https://www.facebook.com/ibighit/posts/2802970936387120>

지도 못하는 교착상태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나는 이 교착상태를 해결하려는 ‘규범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때로 규범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이 사안은 ‘순진한 지민’의 본질을 까발리는 준엄한 비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나의 해프닝이긴 했지만, 이 티셔츠 소동은 일본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을 스타벅스 같은 ‘보편 상품’으로 인준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슈퍼볼’이라고 불리는 2018년 흥백가합전에 방탄소년단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것은 티셔츠 해프닝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던 이 ‘아시아의 비틀즈’는 이제 일본 내에서, 위험한 민족주의 따위에,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음흉하게 영합한 철부지라는 불편한 이미지를 표식처럼 달게 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부당하다고 항변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이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모든 사태는 방탄소년단의 잘못이라기보다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구성하는 변증법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방탄소년단의 딜레마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다.

세계시민주의는 실질적으로 근대 이후 시민을 만들기 위한 계몽주의의 이념이었다.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시민주의를 공범을 통해 체제로 만드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⁷ 근대 시민은 민족주의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세계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이 사상의 핵심이다. ‘성숙한 근대 시민’은 이런 의미에서 민족국가의 테두리를 넘어서 인류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시민주의의 기저에 놓여 있는 것은 군주

7 Immanuel Kant, *Towards Perpetual Peace and Other Writings*, trans. David L. Colclas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82.

의 영토에 근거해 세계를 파악했던 근대 이전의 세계관을 버리고 세계를 단일한 구성물로 파악하는 과학적인 태도다. 이런 태도를 초래한 초기 과학 중 하나가 언어학과 인류학이다. 인종이론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인간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등장했던 셈이다. 인류를 영토에 속하는 각자 다른 '신민'이 아니라 인종으로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동일한 기원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인종의 우열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세계관인 것이다. 일본 교토학과의 일원으로 분류되는 미키 기요시는 『독서와 인생』이라는 에세이집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브릭스였지 않은가 싶은데, 나의 재학 시절에 다쓰노중학교에도 처음으로 외국인 교사가 부임해 왔다. (...) 이 미국인 선생님이 부임 인사를 할 때 자기는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이 바닷물이 일본의 해안에 밀려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세계는 하나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한 말이 지금도 이상하게 내 귀에 남아 있다.⁸

세계를 '하나'로 인식하는 이 미국인 선생님의 모습이 당시 일본인 미키 기요시의 눈에 낯설게 보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근대가 몰고 온 지식의 체계는 모든 사물을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한편으로, 그렇기에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세계는 능력과 자격에 따른 위계의 분할을 초래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단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언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초기 계몽주의자들이 사유와 언어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난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인도유럽어나 우랄알타이어 같은 어원에 따른 언어의

8 미키 기요시, 『독서와 인생』, 최현 역, 범우사, 2007, 29.

분류법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문화’라고 불리는 양가적인 생활세계는 민족과 인종의 괴리를 봉합한다. 그러나 이 봉합은 종종 극우정치의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균열을 드러낸다. 평소에 다문화적이고 세계시민주의적인 삶을 동경하다가도, 난민이나 이민 문제에 당면하면 인종주의자로 돌변하는 민족국가의 시민들을 발견하곤 어렵지 않다. 이 균열을 따라 작동하는 것이 극우정치의 정동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극우정치는 세계시민주의에 내재한 근본 모순을 폭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폭로에 그칠 뿐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는 극우정치의 기동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억견을 극복하고 토론의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도 극우정치는 억견을 절대화해서 정치적 인기를 누리기에 바쁘다. 극우정치는 세계시민주의의 모순을 해결한다기보다, 그 모순 자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모순은 세계시민주의의 이중성을 만들어낸다. 세계시민주의를 상징화한 소설 중 하나가 『그리스인 조르바』다. 이 ‘그리스인’은 근대 문명의 원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그리스인’은 하나의 국가로서 현전하는 그리스를 지울 수 없다. 이 그리스는 유럽연합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현시하고 있는 위기의 국가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자신을 호명하더라도, 이 호명은 언제나 특정 민족국가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한 명의 여행객으로서 우리 모두는 특정 민족국가의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여행객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난민으로 전락한다. 이 문제는 국제법이라는 단일세계의 규칙이 기반되어야만 우리가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규칙을 통일시키려는 글로벌 기획이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시장의 통합이라기보다 글로벌 단위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시장이 아닌 다양한 시장이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이상이다. 이때 다양한 시장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상품들 역시 특정한 민족국가를 생산지로 갖는다. 민족국가 없는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딜레마는 북한을 남한의 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판단 때문에 발생한다.

세계시민주의에 내재한 이중성은 아무리 자신을 세계시민이라고 호명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순간 특정한 민족국가의 일원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에서 발생한다. 김구는 『백범일지』에 수록된 「나의 소원」이라는 연설문에서 세계시민주의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세계 인류가 네오 내오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해동포(四海同胞)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 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⁹

우선의 과제가 민족국가 건설이었던 김구에게 세계시민주의는 현실이라기보다 이상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이상에서 현실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세계시민적인 한국인이거나 세계시민적인 일본인이 되는 것이지 이 모두를 초월한 ‘그리스인’이 될 수 없다. 방탄소년단이 이중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은 역사에 무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잘 알았기 때문에 티셔츠 해프닝을 불러온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입장에서 본다

9 김구, 『백범일지』, 돌베개, 2002, 423.

면, 한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개념 있는 행동’이다.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 잘못되었다고 배운 한국인으로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원폭을 옹호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당연히 그 일본의 강점 상태를 종결시켰다고 운위되는 원폭은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¹⁰ 방탄소년단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이 둘이 사실상 상반되는 가치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민족과 인류라는 두 범주의 균열을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균열을 평소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인에 해당하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뉴시스의 보도처럼,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에게 이런 논구의 자세를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¹¹ 다만 이들이 드러낸 ‘개념 있는 행동’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행동은 민족국가라는 근대의 정치체에 내재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 민족국가에서 민족은 근대국가 이후에 사후 구성된 것이다. 민족이 있고 국가가 생겨났다는 믿음은 신화다. 국가가 생긴 후에 국가와 인민의 괴리를 봉합하기 위해 발명된 판타지가 바로 민족주의다. 국가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에서 인민의 의지를 총합한, 말하자면 일반의지보다 작다. 국가와 일반의지의 불일치는 끊임없는 정치변화의 원천이다. 우리는 민족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민족주의이고 민족은 숭고대상으로 경험의 저편에

10 이 ‘강점’이라는 용어법에 대해 황호덕은 “점령이라는 말에는 전쟁이 전제되며, 지배 기간의 한시성 혹은 합법성/불법성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말한다. 빅히트는 ‘일체의 의도’를 부정하면서 사태를 열버무리고 지나갔지만, 사실상 이런 ‘일체강점기’를 “부당한 개입”으로 간주하고 “점령군을 불법적인 것,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취해야 하는 민족주의적 원칙이다. 현실에서 이 문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이다. 이 해프닝의 정치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현한다(황호덕, 『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 36-37).

11 이 기사는 향후 케이팝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지 사회의 맥락을 읽어 알맞은 콘텐츠로 변환시켜야 한다”는 규범적 진단을 소개하고 있다(「[뉴시스 초점]방탄소년단 티셔츠, K팝에게 주어진 세계문화사 숙제」, 2018. 11. 14. <https://news.joins.com/article/23123003>).

존재한다. 이 경험할 수 없는 민족이 민족주의를 추동하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에게도 민족은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재하는 민족을 둘러싼 서사다. 앞서 지적했듯이, 방탄소년단의 문제는 이 양가성을 몰랐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 양가성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방탄소년단의 ‘자질’ 문제인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근대 민족국가의 시민으로서 그 양가성의 딜레마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시민성은 선천적으로 주어졌다고 배웠지만, 역사적으로 민족국가를 통해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국적 없는 시민성은 있을 수 없다. 개개의 시민은 세계시민주의의 세계로 나아가는 순간, 한국인으로, 일본인으로, 중국인으로 자동 호명된다.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는 이런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이다. 오히려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실한 민족성의 구현에 달려 있다.

세계시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백남준 같은 예술가가 말년에 주몽 설화에 집착한 것이 좋은 예다. 또 다른 예를 꼽자면, 세계적인 형법학자 유기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맞서 미국으로 망명한 전 서울대 총장이 한국인의 조상이 유태인이라는 한유동조론(韓猶同祖論)을 신봉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누구보다도 세계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민족의 뿌리를 평생 탐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더 열성적으로 한국 내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한국이 잘되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이 좋은 국가로 비쳐야 이들도 ‘좋은 한국인’의 표상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셈이다. 방탄소년단의 행보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한’ 아이돌 그룹으로서 방탄소년단이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아이돌 그룹보다도 ‘개념 있는’ 이들은 더 진정성 있는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민족주의의 제스처였다.

이런 모습은 다른 아이돌 그룹의 해프닝과 정확히 반대의 이미지를 보여준

다. 보통 다른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은 민족주의를 배반해서 비난을 자초하곤 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민족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욕일기 문양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거나 안중근 의사의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개념 없는 행동’과 비교해 방탄소년단의 행동은 확실히 ‘충실한 한국인’으로서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진정성은 방탄소년단이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시민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방탄소년단이 지금의 지명도를 얻게 된 것은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을 점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이들의 음악이 내수시장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이 의미는 또한 ‘한국인의 위대함’이라는 전형적인 민족주의 서사의 논리로 수렴 가능하다. 제국의 언어를 획득함으로써 민족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은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민족주의 서사에 기원을 제공하는 원텍스트 중 하나다. 최남선이 이 책을 쓴 것은 일본에 대항하는 ‘민족 신화’를 창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항은 일본을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조선이 하나의 문화권임을 ‘인정’ 받는 것을 의미했다.

이 책에서 최남선은 인도나 중국 문화와 다른 ‘불함문화’를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불함’이라는 말은 중국의 신화집 『산해경』에 등장하는 지명으로, 동이족의 강역으로 추정되는 대인국의 불함산(不咸山)을 지칭한다. 흥미롭게도 최남선 역시 어원학을 새로운 인식의 틀로 제시하면서 한국어로 ‘밝다’는 말과 한자의 희다는 ‘백(白)’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놀랍게도 여기서 최남선은 이를 통해 중국과 한국보다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중국이 아니라 일본을 한국과 ‘자매관계’라고 부른다.¹² 확실히 이런 세

12 최남선,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2008, 122.

계관은 중국에 대한 ‘사대’를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았던 조선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남선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민족주의는 다분히 근대의 발명품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가 가짜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다. 에릭 홉스봄이 민족주의를 발명품이라고 칭했을 때, 그가 민족주의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려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홉스봄의 입장에서 민족주의는 부정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핵전쟁으로 초토화되어버린 지구에 착륙한 한 외계인 역사학자의 우화를 들려주는 홉스봄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 가상의 외계 역사학자는 지구에 남겨진 도서관의 자료를 토대로 인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민족’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홉스봄은 말한다.

홉스봄의 주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형성되는 민족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시민권과 대중 참여 또는 선택이 민족에서 빠진 적이 없다”고 말한다. 민족은 모든 ‘인민’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이고, 이런 정치적인 측면을 체현한 것이 바로 근대의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민족에 대한 인민의 욕망이다. 이런 욕망은 영토에 대한 집착이기도 한데, 말하자면 ‘민족=국가=인민’이라는 등식은 국가가 영토의 문제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잊게 만든다. 토머스 홉스 같은 초기 자유주의 계약론자들이 지적하듯이, 사실 국가의 통치는 계약의 문제이지 영토의 문제가 아니다.

민족을 인민의 욕망과 연결해서 고찰하는 이는 홉스만이 아니다. 존 스튜어트 밀도 민족주의를 “동일한 정부 아래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의 산물로 본다.¹³ 이런 욕망은 같은 정부 아래에 예외를 두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을

13 John Stuart Mill, *Essays on Politics and Society*, ed. J. M. Robinson (London: Routledge, 1977), 546.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자유주의 철학의 전제이기도 하다. 평등한 개인들의 총체가 바로 민족이라는 관점은 근대 자유주의 사상을 이루는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주장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민족주의를 단순하게 이데올로기의 문제로만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민족주의가 주체를 호명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주체들이 민족주의의 판타지를 욕망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주체가 아버지의 이미지로서 만들어낸 기표가 민족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족주의를 반드시 국가장치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민족주의는 국가장치의 견고성을 흔드는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판타지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어떤 외상의 에피소드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외상의 에피소드를 흡수식으로 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족주의는 탈민족주의 같은 단순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의 문제이기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탈민족주의 같은 대안론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민족주의를 판타지의 문제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주체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체는 민족주의라는 판타지를 구성함으로써 주체로 태어난다. 유령을 본 햄릿은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을 염원하는 민족주의의 판타지는 우리의 무의식을 닮아 있다. 물론 민족주의 자체가 무의식이라는 뜻이 아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출몰하는 것이다. 그 실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민족이다. 개인이 평등하고, 모든 통치의 주체에 놓이는 완벽한 단위. 이 이상의 자아가 획득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민족주의는 탄생한다. 이 부재의 자리, 이 비어 있는 실재의 자리야말로 우

리가 주체를 확보하는 그 지점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민족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체가 가능하다. 그 주체는 민족주의라는 판타지를 통해 언제든지 부재한 민족을 단번에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도착의 순간에 우리는 내면을 발견한다. 그 내면의 풍경에서 우리는 민족의 재현을 본다. 방탄소년단 현상은 이렇게 민족과 결합해서 출몰하는 낯선 내면의 풍경이다. 민족주의가 증상이라면, 이런 부재의 현시들은 분명 더 이상 증상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증상을 폐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다만 이 증상으로부터 계속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이 증상을 회복하려 할 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탄소년단은 다른 아이돌과 달리 좀 더 진지한 아이돌로서 자신들을 네이밍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제스처가 이들에게 허락한 것은 자신의 세계시민주의라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민족주의였다. 이 상황은 분명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체제의 곤경을 가리킨다. 방탄소년단 ‘현상’이 잘 보여주듯, 세계시민주의와 민족주의는 결코 상호 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성을 이루는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